

'나' 라는 주체의식을 버리면 죽지 않습니다

계속 웃으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죽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썩기 때문입니다.

'나' 를 위해서 살면 꼭 죽는 다

썩은 피가 축적되어 점점 많아지면 썩은 피속에서 병균이 발생됩니다. 병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의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밖에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는 병균은 즉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썩은 피속에서 발생한 병균이 점점 번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병이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침투한 까닭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기관에는 세포가 있고 세포의 수명은 일정합니다. 제일 긴 세포는 29일 정도 삽니다. 29일 살고나서 죽어서 여러분이 목욕을 할 때 때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욕심 때문에 죽는 거지 욕심만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욕심을 버리게 하는 주체영인 '나' 라는 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욕심 부린다는 것은 '나' 라는 의식의 마음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나' 라는 의식에 의해서 나오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를 기준으로 마음을 움직이면 그대로 피가 계속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욕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것이 욕심인 줄만 알고 있는데 내가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역시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내가 저것을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전부 욕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 라는 주체의식에 달려있는 마음은 전부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피가 썩는 것입니다.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지면 재생되는 세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주름살이 생기고 기력도 없어지고 저항력도 없어지니까 결국 병에 걸렸다 하면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는 원인이 바로 피가 썩으면 썩은 피가 저항력이 없어져서 죽는 것이지 저항력만 있으면 안 죽는 것입니다.

'에이즈' 라는 병은 저항력이 감퇴되는 병입니다. 에이즈에 걸렸다 하면 저항력이 감퇴되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항력이 없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항력을 키워주는 힘은 생명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자는 웃음을 웃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소나무 밑에 가면 산소를 많이 호흡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나무 밑에 가지 않아도 매일 웃기만 웃으면 생명자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자꾸 웃으면 병이 낫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항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웃으면 암병이 낫는다는 말도 역시 저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매일 웃어야 합니다. 웃으면 사람의 피속에서 생명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영생

이 사람은 초창기부터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영생이요. 마음만 바로 먹으면 죽을 수가 없고 병에 걸리려야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웃으



구세주 조희성님

세요. 누가 보면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매일 빙글 빙글 웃고 다니는 겁니다.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느냐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웃고 다녀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얼굴이 못생겨도 웃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흉측하게 생긴 남자라도 웃고 있을 땐 그다지 보기 싫진 않습니다. 웃음 속에 꽃이 피는 고로, 그래서 사람은 웃으면 생명자가 발생되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수심에 차 있는 사람, 항상 마음이 우울한 사람, 그런 사람은 피가 썩어서 조금씩 늙어지고 그러면서 허리도 꼬부라집니다. 꼬부라진 후에 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펴려고 하면

뼈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매일 웃으면 가슴이 퍼집니다. 실제로 가슴이 퍼지거나 안 퍼지나 물어보세요. 매일 웃어야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배 보는 시간에도 웃으면서 예배를 보면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웃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거지 근심 걱정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시간 정도만 계속 웃으면 그 다음부터는 향취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감로 이슬 성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향취 냄새는 감로 이슬성신의 냄새입니다.

구세주의 몸은 이슬성신으로 뭉쳐진 몸으로 향취는 바로 이슬성신의 냄새

이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오면 늘 향취냄새가 나지요? 그것은 이 사람의 몸 자체가 감로 이슬성신으로 뭉쳐진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만 들어와도 향취냄새가 진동합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죠? 열흘만 되면 꽃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무실의 꽃은 1년이 가도 지지를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구세주라는 사람이 바로 영생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영생체의 몸이 거기 앉아 있으면 영생의 물질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꽃이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꽃이 지려면 생명력이 다했기 때문에 지는 것이니까. 구세주 몸에서는 감로 이슬성신이 나오니까 그 생명의 물질이 전부 꽃에 전달이 되

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구세주는 영생을 충분히 주고도 남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보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에 출석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나와야 안 죽지 빠지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욕심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이 빨리 죽습니다. 고집이 왜 센가 하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고집이 센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이 오래 사는 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잡자다가 그냥 잡든 채로 뻘뻘하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원인이 욕심을 부려서 피가 썩었기 때문에 썩은 피가 전부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승리제단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전에 감로 이슬이 찍혀 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

항상 사람이 웃어야 하지만 웃음이 안 나오는데 어쩌나 하겠으면 마음이 웃는 단계에 이르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웃으면 바로 엔돌핀이 나오면서 생명자가 생기는데 생명자의 물질은 빛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환해지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킬리언(Semyon B. Kirlian)이라는 사람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사람의 사진을 찍어봤더니 사람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이름을 '오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오

라는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또 나뭇잎을 찍어 봤더니 거기서도 빛이 나왔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으면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입과 코와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빛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주파 촬영기가 아니고 보통의 사진기에도 이렇게 크게 감로 이슬이 찍혀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생활을 안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있는 이 사람이 구세주가 되기까지 항상 희생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웠는데 누가 돈을 대줘서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커피를 쏟는 것을 본 미군이 팔군 사령관에게 건의를 해서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학교를 세울 때 그 지방 유지들이 학교를 이 사람 소유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 학교가 영원히 존립하려면 나라에 바쳐야 된다'고 주장하여 공립학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2003년 7월 18일 말씀 중에서

조희성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재벌의 길을 포기하다

조그만 일개 회사 사장이 즐지에 동양 일대의 갑부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조차 과감히 박차버렸다

밀실에서 육체적인 중노동은 매일 같이 하였고, 밀실 식구들 간에도 온갖 시련과 연단이 주어졌다. 보통 사람으로서의 힘이 들고 자존심이 상해서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세상 출을 끊고 밀실에 들어가 직전에는 남대문 영화빌딩 7층에서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공유물 산주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회사는 날로 번창하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여놓아 이제야 고생 안 하고 살아가 나보다 하고 안도감이 마음속에서 생기고 있었다.

그럴 때쯤 중국에서 등소평의 친구로 장관 자리에 있던 분의 자제 한 사람이 홍콩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원자재 개발권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당시 우리나라 재계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 보았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찮게 남대문 근처 다방에서 만난

이 사람을 보자 붙잡고 앉아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관심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서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계약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중국의 광대한 원자재 개발을 맡아 중국에 이익과 상호 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며 한사코 조르기에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가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것이 삼시간에 소문이 나자 재계의 거물들이 돈은 얼마든지 대주겠으니 동업을 하자고 제의를 해왔다. 조그만 일개 회사 사장이 즐지에 동양 일대의 갑부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었다. 동양 제일의 갑부가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던 것이다.

해와이건자와의 운명적인 만남

어느날 지 선생이라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여자 분이 회사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떤 여자분 가운데 은혜를 엄청 많이 받은 분이 있는데 한 번



해와이건자는 이 사람에게 당장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여관에서 자라고 하였다 / 그림 박준구 장로

만나보지 않겠냐고 계속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 여자 분에 대해 여러 가지 신비스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한 번 일

면식을 해볼 것을 권민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하도 그러기에 도대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

보고 가르쳐 줄 양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그리하여 약속한 기일에 지 선생과 함께 마포에 있는 망원동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 때문에 들어 서자마자 마치 양동이로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온 몸이 시원하고 몸이 뚱뚱 뜨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 체험이 오는 것이었다. 일찌기 영모님을 따르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은혜 체험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그래서 방안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 이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아니지만 - 벌써 영적으로 이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분은 일명 해와 이건자로 통하는 분으로서 얼굴과 풍채에서 풍겨져 나오는 느낌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해와이건자는 반갑게 이 사람을 맞아주면서 말씀을 하시었는데, 더욱 더 은혜 연결이 강하게 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모님께서도 활짝 웃으시는 것이

였다. 이 사람은 몇 마디 나누지 않고서도 이분이 하늘의 사명을 지고 움직이는 큰 은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정녕 이분이 하늘의 사람 영모님이 키우는 분이라는 확신이 서고 하늘의 숨은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지 선생을 통해 알게 된 해와이건자는 이제부터는 눈길로나 입술로나 마음으로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려는 지엄하신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다. 당장 집에 들어가 말고 회사에서 자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 모든 전체, 생명까지도 던질 각오와 결심이 항상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인 고로, 빈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대지 않고 즉각 남대문 시장에 나가 오리털 침낭을 하나 사서 그날부터 책상 위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던 것이다.*